

오얏론(論)

민경탁

성주 가천고등학교 교사

1.

몇 해 전 경기도 광주의 어느 전원 주택에서 휴가를 보내던 중 나무 아래 돛자리를 깔고 쉬고 있을 때였다. 어떤 나무의 초록 잎 질푸른 가지에 황갈색 열매가 무성한테 다람쥐들이 오르내리며 그 열매들을 열심히 따 먹고 있었다. 나무 그 아래엔 황갈색 열매들이 수도룩이 깔려 있었다. 이게 무슨 열매냐고 주인께 여쭙어 보았더니 오얏이라고 하였다. 난생 처음 말로만 듣던 오얏을 목격한 것이다. 한 알 씹어 보니 맛이 시고 씹쓸하였으며 자두보다는 단 맛이 덜 하였다.

그런데 문제는 그게 아니었다. 자두보다는 잘고 노르끼한 ‘오얏’ 열매의 신맛이 내 뒤통수에 찌르르 전율을 일으킨 것이다. 언제인가 문학 시간에 박두진¹⁾의 시 「어서 너는 오라」의 “...앵두꽃도 오얏꽃도 피었다고 일러라...”에서 ‘오얏꽃’을 ‘자두꽃’이라 일러 준 기억이 되살아났기 때문이다. 잇달아, 그 전에 어느 국어학자 한 분이 현행 표준어 규정에서의 ‘오얏’과 ‘자두’의 관계

* 편집자 주 : 이 글은 『국어교육 연구』(경북 중등국어교육연구회, 2000. 1.)에 실렸던 글을 재수록한 것입니다.

설정에 문제를 제기한 기억이 되살아났다¹⁾. 집으로 돌아 온 후 필자는 여러 방면으로 ‘오얏’과 ‘자두’에 관하여 조사해 보기로 하였다. 현행 표준어 규정대로 ‘오얏’은 사어(死語)가 되어야 하며, ‘자두’가 ‘오얏’의 표준어가 되어야 하는 것일까?

2.

먼저 원예학적인 면에서 ‘오얏’에 대하여 조사해 보았다. 전문 학자들에 의하면 ‘오얏’과 ‘자두’는 종(種)은 같으나 품종은 다른 것이라 한다. 능금(아시아 종)과 사과(서양 코카서스 산맥 원산)와의 관계와 같다고 한다.²⁾

중국 고래의 식물학·약물학 저서인 본초강목(本草綱目)에도 “李는 그 종류가 매우 많다. …綠李·黃李·紫李·朱李·水李 등 그 종류가 근 100에 달하며, 그 열매가 큰 것은 잔이나 알과 같다”라고 풀이하고 있다.³⁾ 현재 오얏나무는 희귀하지만 국내(특히 경기도, 충청도 등의 지방)에서 어렵잖게 볼 수 있다.

한편, 자두의 품종에는 동양자두·유럽자두·미국자두가 있는데 유럽자두와 미국자두는 오래 전에 동양자두 곧 중국자두가 전파되어 그곳에 적응된 것들로서,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꾸고 있는 자두는 대부분 유럽종 자두이며 1920년대 이후 재배되어 오고 있는 것이라 한다.⁴⁾ 곧 계통상으로 보아, 동양의 ‘오얏’이 유럽과 미국으로 전파되고 이것이 개량되어 다시 우리나라에 재수입되면서 ‘자두[紫桃]’란 단어가 생겨난 것이라 하겠다.

어휘론적인 면으로 자세히 살펴보았다. 한국어 어휘 가운데에서 ‘오얏’만큼 그 방언형과 이 형태가 복잡, 다양하였던 단어도 없을 것이다. ‘오얏’의 방언은 고야(충북·강원)계에서부터 놀(함북)계, 애아치(경남)계, 오얏(경남·북, 충남·북, 강원)계, 왜지(함남·북, 평남·북, 황해)계, 자도(전북)계,

1) 진태하, 바른말 고운말(17) 「오얏」과 「자두」(한국 국어교육학회, 『국어교육월보』 제26호 1989. 9. 1.)

2) 서울대 원예학과 고희출 교수, 한국 원예 연구소 조명동 연구관 등.

3) 이시진, 『본초강목』(영인본: 백윤기, 서울: 고문사, 1973. 3.) 권29. 987~988쪽.

4) 『세계 대백과사전』(동아출판사 백과사전부, 1988. 6판) 제24권 65쪽.

추리(경북, 전북, 북한 지방)계, 풍개(경남·북)계, 깨끼(경북)계 등에서 모두 35종이나 된다.⁵⁾ 또한 북한과 중국 연변 자치주의 조선말 사전에는 ‘추리’가 남한의 경북(안동, 영주, 봉화) 방언에서와 같이 ‘오얏’의 동의어로 등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⁶⁾

그리고 어휘 ‘오얏’은 그 변천사 또한 매우 복잡다단하였다. 이 단어는 조선 초기 성종 때에 ‘오얏, 외얏, 외얏, 오얏’ 등으로 통용되다가 그 후 ‘외얏, 외얏, 외얏’으로도 쓰였으며, 1700에 ‘오얏, 외얏, 외얏, 오얏’ 등으로 통용되다가 그 후 ‘외얏, 외얏, 외얏’으로도 쓰였으며, 1700년대(숙종 무렵)에는 ‘외올’으로도 표기되었던 것으로 밝혀진다. 곧 이 어휘의 변천사는 ‘오얏, 외얏, 외얏, 오얏’외얏, 외얏, 외얏’외올’으로 요약되는 바, ‘오얏’이 그 대표형이었던 것이다.⁷⁾

그 전과 역사와 품종이 다양함으로 인하여 어휘 ‘오얏’의 변천과 표기 또

5) 최학근, 『한국방언사전』(현문사, 1978) 화과(花果) 편 765~766쪽.

6) 『조선말 대사전』(2)(북한 사회과학원 언어학 연구소, 사회과학 출판사, 1992. 11). 14, 1545쪽. 『조선말 사전 2』(연변 사회과학원 언어연구소 편찬, 연변 인민출판사, 1995. 4) 903쪽.

7) 여러 문헌에 나타나는 어휘 ‘오얏’에 관한 표기를 시대순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오얏 : 불근 오야지 트레 득마도 츠디 아니호고(朱李沈不令) <『두시언해』 초간 10 : 12 1481년 성종 12>.

외얏 : 복성화와 외야지 니구메 後 호디(後於桃李熟) <『두시언해』 초간 15 : 20>.

외얏 : 프른 외얏과 누른 梅花를 굴히야 문디 아니호노라(不問綠李與黃梅) <『두시언해』 초간 15 : 19>.

오얏 : 복성화 오얏나모드려 문노라 <『南明集諺解』 1482년 성종 13>.

오얏 님과 대츰 님 디혀 췌 므를 디그면<『救急簡易方』 1489년 성종 20>.

李 오얏 니<『新增類合』 상 : 9. 1576년 선조 9>.

외얏 : 李 외얏 니 俗呼李兒 <『훈몽자회』 초간 상 : 6. 1527년 중종 22>.

외얏 : 비 외얏 잣(梨兒 李子 松子) <『번역 노걸대』 하 : 38 1547?>.

외얏 : 李 외얏 <『千字文』 광주본 1575년>.

외올 : 李 외올 리<『倭語類解』 하 : 7. 17?? 숙종 때>.

이상 『고어사전』(남광우, 일조각, 1988. 10), 『이조어 사전』(유창돈, 연세대학교 출판부, 1992. 3), 『우리말 큰 사전』(한글학회, 어문각, 1991. 1.) 등에서 재인용함.

한 매우 복잡다단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남·북한 및 중국 연변 자치주의 여러 국어사전과 방언사전들을 종합하여 살펴보았을 때, 원래 ‘오얏’과 ‘자두’는 동위어(同位語)였으며 자색(紫色)의 오얏을 뜻하는 ‘자도(紫挑)’가 변음하여 ‘자두’가 된 것으로 밝혀진다.

요컨대, ‘오얏’이란 어휘는李의 통칭으로서 중국이 원산지인 ‘李’라는 과일에 대한 순 우리말이며, 북한과 중국 연변에서는 동위어로 ‘추리’도 통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단어를 역사학적인 면에서 살펴보자. 일찍이 조선의 李씨 문중 탄생이 오얏나무와 연고가 있었음은 물론이겠거니와 널리 전하는 ‘벌리(伐李)’ 전설과 여러 문헌에 고려 중기부터 경복궁, 창덕궁 그리고 북악산 지역에 오얏나무가 무성하였음이 밝혀져 있다.⁸⁾ 그 내용인즉 고려 말 조선 개국의 기운이 감돌 무렵 그 창업의 주체 세력이 李씨였음과 북악산 아래 자하문 밖이 오얏나무의 명산지였음을 연관지어 생각하였던 데에서 일어난 사건과 기록들이다. 근대에 이르러 이 ‘자두’가 교통이 편리한 서울 자하문 밖에서부터 대량 생산되어 과급되면서 그 실용성과 더불어 이 단어가 널리 보급된 것으로 보인다.

오얏꽃(李花紋)은 대한 제국에서 황실 문장(紋章)으로 삼아 왔으며, 건축물, 용기·집기, 복식, 훈장·기장, 화폐 그리고 학교의 수료·졸업 증서까지 그 상징 문양으로 사용하여 왔다. 한말에 불렀던 경축가에

깃부도다 깃부도다/만수성절 깃부도다//선리건곤(仙李乾坤) 밝은
 꽃은/봄바람에 빛이나네// …………… — 『만수성절가(萬壽聖節歌)』

와 같이 황제의 성수절을 맞아 황실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함에 오얏꽃(仙李)을 등장시키고 있었던 것이다.⁹⁾

대한 제국 말기까지 오얏꽃 문장(紋章)은 황실을 상징하는 표식으로

8) 이상희, 『꽃으로 보는 한국 문화』 제1권(넥서스, 1999. 1.) 83~85쪽.

9) 이상희, 위의 책 88쪽.

뿐만 아니라 국가를 상징하는 문장으로 사용하여 왔었으며, 오얏꽃 무늬는 지금까지 전주 이씨에서 문중 문양(門中紋樣)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3.

그런데 1988년 1월 문교부 고시 표준어 규정(제3장 제20항)에서 “사어(死語)가 되어 쓰이지 않게 된 단어는 고어로 처리하고, 현재 널리 사용되는 단어를 표준어로 삼는다”라고 하여 ‘오얏’을 버리고 ‘자두’를 표준어로 삼았다.

현재 국내의 거의 모든 국어 사전들이 ‘오얏’을 ‘자두의 옛말’ 또는 ‘자두의 예스러운 이름’으로 취급하고 있으며, 단지 한글학회의 『우리말 큰 사전』(1992. 초판)만 ‘오얏’을 “오얏 나무의 열매. 복숭아와 비슷한데 조금 작고 신맛이 있다”라고 하며 “가경자(嘉慶子), 자도, 자두, 자리”와 동의어로 풀이하고 있다. 1988년 표준어 규정 고시 이전의 국내 국어 사전¹⁰⁾과 앞서 밝힌 북한과 중국 연변 자치주의 사전들에는 분명 ‘오얏’과 ‘자두’가 동의어로 실려 있었다.

4.

원예학상, 어휘론상, 역사상으로 살펴보았을 때 ‘오얏’이란 단어는 ‘자두의 예스러운 이름’이 될 수가 없다고 본다. 현행 표준어 규정에 따르자면 우리는 농씨를 “자두 이씨”라 불러야 하는데, 지금 우리는 아무도 이 성씨를 “자두 이씨”라고 부르지 않는다. 국어 표준어 규정에서 ‘오얏’과 ‘자두’는 마땅히 재심 의되어야 한다. ‘오얏’은 ‘자두’의 고어가 아닌 역사와 정감 어린 고유어로서 당연히 표준어가 되어야 할 것이며, ‘자두’가 ‘오얏’의 표준어가 될 수는 없다. 더구나 오얏꽃을 자두꽃이라 가르치게 하여서는 아니 될 것이다.

10) 『새 우리말 큰사전』(신기철·신용철, 삼성출판사, 1983. 6. 제2판, 2429쪽)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국어연구원 의견)

위 글의 내용과 국립국어연구원의 의견이 전적으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표준어 규정 제20항'에서 '오얏'을 비표준어로 처리한 것은 '자두'와 동의어로 쓰일 때에 '오얏'이 비표준어라는 뜻이다. 그러므로 '오얏'이 '자두'와 식물학적으로 다른 품종이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사과와 비슷하지만 조금 작은 열매'의 뜻으로는 표준어지만 '사과'와 동의어로 써서 '대구 사과'라고 할 것을 '대구 능금'과 같이 쓸 때는 비표준어이다.

'오얏'이 '자두'와 식물학적으로 다른 품종인지의 여부 또한 분명하지 않다. '오얏나무'를 '자두나무'와 동의어로 처리하고 있는 한글학회의 『큰사전』에 '오얏나무'의 학명은 *Prunus triflora Roxburgh*이다. 그리고 『표준국어대사전』에 실려 있는 '자두나무'의 학명은 *Prunus salicina*이다. 그런데 『한국식물명고』(이우철, 1996, 아카데미서적)에 따르면 이 두 학명은 모두 '자두나무'의 학명이다. 학자에 따라 전자로 적는 경우도 있고 후자로 적는 경우도 있지만 동일한 식물의 학명이라는 것이다. 민경탁 씨의 글에서 '자두'와 '오얏'이 원예학적으로 다르다고 하는 전문가의 의견이 있다고 했지만 식물은 학명에 따라 분류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자두'와 '오얏'이 식물학적으로 다른 품종이라는 것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었다고 말하기 어렵다. 참고로 '능금나무'의 학명은 *Malus asiatica*이고 '사과나무'의 학명은 *Malus pumila var. domestica*로 서로 다른 식물임을 알 수 있다. 그런 까닭에 '사과'와 '능금'을 구분하는 것은 근거가 있다.

'오얏'이 표준어가 되려면 먼저 식물학적으로 '자두'와 '오얏'이 다르다는 공인이 식물학에서 있어야 한다. 하지만 그럴 경우에도 '오얏'을 '자두'의 동의어로 사용할 때는 여전히 비표준어이다. 따라서, '표준어 규정 제20항'을 수정할 이유가 없다.